



I think most of you know me already. My name is Sr. Mary Lou Palas, formerly known as Sr. Marie Germaine. I am next to the oldest of 8 children. I grew up in a small town of 13 houses; the closest Catholic school was 7 miles away. It was at St. Luke's High School where I met the Sisters of Charity. I began thinking about being a sister when I was in 6th grade. Then in high school during my sophomore year, one of the



sisters said to me, "I think you have a vocation; you should join the Sacred Heart Club." So I did, and senior year came and I had been praying, asking God to help me know his will for my life. I have always felt that God speaks to us through other people. So it was through the sisters at St. Luke's and the retreat priest during senior year that I believed God was calling me to be a Sister of Charity. My sister, Kay was in the community; while she never tried to influence me, she was always there for me.



So here I am, a Sister of Charity for 62 years, loving every minute of it! I have had many wonderful opportunities throughout my religious life doing things that I never



dreamed of doing! I spent most of my teaching years in high school, teaching biology for 23 years, in administration in two high schools and then in diocesan Catholic Schools Office as Curriculum Director, K to 12 in



two different dioceses for 19 years. Since then I have been ministering in pastoral care, at Country Meadows where my mother was for 10 years and at Humility House in the Diocese of Youngstown, Ohio. In between that I participated in the IECM program in Ecuador the summer of 2012. I volunteered to teach conversational English at Somyong High School in Korea, which I did and loved for 2 ½ years. I was

thrilled to get to know and love so many sisters in Korea, and Korean food and the culture. I loved teaching the girls in the high school! I learned to pray the prayers in Korean and to read Korean but not to speak it.

My most recent experience has been living in the novitiate with our novice, Sr. Hyeon Lee and her director, Sr. Mary Ann Winters and ministering to our sisters in pastoral care at Caritas Christi which is a real joy! I feel that God has directed and guided my entire life and I pray that I will continue to be open to His will for me.





메리 루 팔라스 수녀(Sr. Mary Lou Palas)입니다. 대부분의 수녀님들이 저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마리 저메인 수녀(Sr. Marie Germaine)라고 했었지요. 저는 8 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나 겨우 열 세 가구만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가톨릭 학교가 7 마일 떨어져 있는 성 루카 고등학교(St. Luke's High School)였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수녀님들을 만났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녀님 한 분이 저에게 '내 생각에 네가 성소가 있는 것 같구나. 성심 클럽에 들어오렴.'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클럽에 들어갔고 4학년이 되면서 제 삶에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계속 했어요. 저는 항상 하느님께서 다른 이들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의 수녀로 부르신다고 믿게 된 것도 성 루카 학교의 수녀님들과 4학년 때 피정 지도신부님을 통해서였어요. 저의 언니 케이(Kay)도 우리 수녀님이었어요. 비록 언니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저를 위해서 함께 해주었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랑의 수녀로서 62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 삶의 매 순간이 정말 좋았어요! 수도 생활을



통해 한번도 꿈꾸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많이 주어졌지요. 교육 사도직을 했던 대부분의 시간을 고등학교에 몸담았습니다. 2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쳤고, 두 곳의



고등학교에서는 행정직을 맡았었어요. 그리고는 교구 가톨릭 학교 담당 교육청에서 유치원 과정부터 12학년까지 교과목 담당으로서 19년 동안 두

교구에서 일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목적 돌봄을 하고 있어요. 저의 어머니가 10년 동안 계셨던 컨트리 메도우즈

요양원(Country Meadows)과 오하이오주 영스타운 교구의 휴밀리티 하우스 요양원(Humility House, Diocese of



Youngstown, Ohio)에서 원목으로 일했지요. 그 사이, 2012년 여름에는 에콰도르 은사체험에 참여했습니다. 또, 2년 반 동안 소명여고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치며 봉사했습니다. 소명여고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좋았어요. 한국의 많은 수녀님들과 한국 음식, 한국문화를 알고 사랑하게 되어 무척 기뻐합니다. 그리고 소명여고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행복했지요! 한국어로 기도도 배우고 한국어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글을 읽는 법도 배웠어요.

최근에는 수련자였던 이현연 수녀님과 수련장 메리 앤 윈터스 수녀님(Sr. Mary Ann Winters)과 함께 수련소에서 살았고 까리타스 크리스티에서 사목적 돌봄으로 우리 수녀님들과 함께하는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지요! 저는 하느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분의 뜻에 저를 맡기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